

언캐니 인간학 연구 - <버려진 자들의 땅>을 중심으로 -

김석원¹, 김성호^{2*}

¹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외래교수, ²안양대학교 교학부총장

A study on 'Uncanny anthropology' - Focused on The Bad Batch -

Seok-Weon Kim¹, Seong-Ho Kim^{2*}

¹Lecturer, Dept of Visual Culture i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²Vice President, Anyang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아나 릴리 아미르푸어(Ana Lily Amirpour)의 영화 '버려진 자들의 땅(The Bad Batch, 2016)'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논문의 핵심주제인 '언캐니 인간학(Uncanny anthropology)'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언캐니(Uncanny)' 이론을 '인간의 관계성 (주체와 타자)'에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이상적 인간학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사용하였다. '언캐니 인간학'의 새로운 이론 논의를 위해서 키르케고르를 시작으로 니체(F. W. Nietzsche),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인간학이 언캐니 인간학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제한적인 지면 관계상 레비나스의 관계적 인간학에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과의 악의적인 관계성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일상적이지 않은 주제를 선택했고, 네러티브에서 인과성을 단절시키면서 주제와 내용을 표현했으며, 레비나스의 언캐니 인간학이 오롯이 표현된 영화로 평가된다.

주제어 : 아나 릴리 아미르푸어, 프로이트, 언캐니, 언캐니 인간학, 레비나스, 관계적 인간학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Ana Lilly Amirpour's movie 'The Bad Batch, 2016'. The core topic of the paper, 'Uncanny anthropology', was specially used in the sense of aiming for ideal anthropology, starting with the meaning of looking at Sigmund Freud's 'Uncanny' theory from 'human relationship (subject and other)'. The anthropology of F. W. Nietzsche, Martin Heidegger, and Emmanuel Levinas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Uncanny anthropology', starting with Kirkegor for the discussion of a new theory of 'Uncanny anthropology'. However, this paper focused on Emmanuel Levinas' relational anthropology due to limited paper relat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film is that it sublimated the malicious relationship with humans into love. He chose topics that were not routine, expressed themes and contents by disconnecting causality in the narrative, and Emmanuel Levinas' 'Uncanny anthropology' is evaluated as a film that expresses only.

Key Words : Ana Lily Amirpour, Sigmund Freud, Uncanny, Uncanny anthropology, Emmanuel Levinas,

*Corresponding Author : Seong-Ho Kim(seong007sk@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30,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November 1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1.1 서론

연구자는 언캐니 인간학을 아나 릴리 아미르 푸어 (Ana Lily Amirpour)의 영화 <버려진 자들의 땅, The Bad Batch, 2016> 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논문의 핵심주제인 ‘언캐니 인간학(Uncanny anthropology)’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언캐니(Uncanny)’를 ‘인간의 관계성 (주체와 타자)’에서 바라보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이상적 인간학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사용한 용어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던 세상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는 ‘언캐니’한 상황과 연결된다. 지금 당면한 한국 사회와 연결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과 관계가 있다. 일례로 인간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비대면 사회, 홀로 사회에서 인간이 부재한 무인 사회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극도의 위기의식과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인간이 부재한 텅 빈 사회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이 인간을 수동화한다.

이런 현상을 마주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변모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을 ‘언캐니 인간학’ 연구에 주목해서, 이를 예측하는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캐니 인간학’에 관한 해외의 선행연구는 전통적인 인류학을 토대로 인간학을 인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사회구조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이 용어가 서구의 논문에서 언캐니를 인류학 이론에 포함하고 있듯이 언캐니가 좁은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프로이트의 ‘언캐니’를 철학적 인간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포스트 휴먼으로 확장해서 ‘언캐니 인간학’의 이론적 방법론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언캐니의 제한된 개념에서 벗어나, 진화된 언캐니 인간학(주체의 인간학, 타자의 인간학, 관계적 인간학)으로 발전시켜 ‘이상적 인간학’에 도달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1) 내용적 측면과 2)방법론적 측면으로 구성되어있다.

1) 내용적 측면: 영화 ‘버려진 자들의 땅’은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과 ‘유토피아/안식처 마을’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의 미래 사회에서 망명 신청자와 추방자를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사실을 언급한다. 우리는 미국 세관 공무원이 ‘버려진 자들의 땅’에 가게 될 수감자와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말하는 위키토키 음

성 해설의 오프닝 크레딧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대략 알게 된다. 그들은 오른쪽 귀 뒤에 배치 번호 문신이 있다. 주인공 알렌(Arlen)은 오프닝 장면에서 울타리 안에 무례하게 버려진다. 이 문이 있는 사막 황야 입구에 있는 표지판은 이곳이 더 이상 텍사스의 영토가 아니며 미국 법률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알렌이 수박 무늬 핫팬츠를 입고 황무지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하다가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의 사람들에게 납치되고 재갈을 물고 묶인 채 주민들은 그녀의 팔, 다리를 잘라서 식사를 한다. 그녀는 극적으로 식인종 마을을 탈출하고, 사막에서 죽어가다가 부랑자가 그녀를 쇼핑 카트에 태우고 ‘안식처 마을’로 데려간다. 이후 그녀는 ‘유토피아/안식처 마을’에서 회복한 후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사막을 찾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쿠바 이민자 마이애미 맨 (Miami Man)의 부인인 마리아 (Maria)를 권총으로 사살하고 그녀의 딸인 미엘을 죄책감으로 보살피게 된다. 아이를 데리고 ‘안식처 마을’에서 돌아온 알렌은 파티에서 환각에 빠져 있다가 다시 사막을 간다. 이런 과정에서 미엘을 잃어 버리고 소녀는 드림의 집에 기거하게 된다. 사막에서 알렌은 마이애미 맨을 만나고 자신이 죽인 마이애미 맨의 딸을 찾아서 마이애미 맨을 만나게 해준다. 하지만 그녀는 ‘유토피아/안식처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마이애미 맨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2) 방법론적 측면: ‘언캐니 인간학’은 프로이트의 언캐니를 새롭게 해석했기에 영화에 언캐니한 요소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있다. 언캐니를 인간과의 관계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relationship between Uncanny and human (subject and Other)

	Characteristics	Detail
Uncanny (Anxiety)	German Romanticism	Relationships between humans(Psychological phenomenon)
	Fantastic Literatur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Psychological phenomenon)
	Psychological phenomenon	Relationships between humans(Unpleasantness, weirdness, unconsciousness, irrationality, fear, anxiety)
	Castration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humans(Incident, accident, shock, discomfort, reverse catharsis)

‘언캐니 인간학’은 크게 구분하면 나와 주체의 철학(주체의 인간학)과 타자와 타자의 철학(타자의 인간학)을 용

합해서 관계적 인간을 넘어서 이상적 인간학으로 귀결된다. '언캐니 인간학'의 새로운 이론 논의를 위해서 키르케고르를 시작으로 니체(F. W. Nietzsche),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인간학이 언캐니 인간학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단순히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언캐니 인간학을 탐구하는 것에서 발전해 인간학의 변형과 이에 따른 정신분석의 영향으로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현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를 예측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레비나스의 관계적 인간학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언캐니 인간학: 타인의 고통 2. 언캐니 인간학: 전체주의 사회 3. 언캐니 인간학: 관계성의 회복으로 전개된다. 언캐니 인간학은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해 도식화할 수 있다. 이것은 나와 주체의 철학, 그리고 타자와 타자의 철학이라는 두 흐름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이상적 인간학'을 앞으로 분석할 이론적 방법론을 구축한다. 즉 언캐니 인간학의 정신분석 확장성에 접목시키기 위한 이론적 토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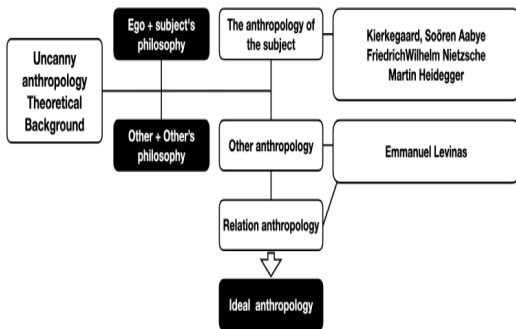


Fig. 1. Establishing the philosophical theory of Uncanny anthropology

Table 2. <The Bad Batch, 2016> & Uncanny anthropology

Composition	Scene	Uncanny anthropology	Relative
2-1		■ Levinas can't relate to the pain of others. →Need to empathize with the pain of others.	■ Maria: Cannibal social criticism.
2-2		■ The disappearance of individual dignity in Levinas' totalitarian society. → The need for philosophy from the other's point of view.	■ Utopia/Comfort Village: Totalitarian Society run by 'Dictators'.
2-3		■ Practice of self-sacrifice based on Levinas' response and hospitality. → The love for enemies.	■ Arlen: The practice of relational anthropology by Levinas.

다음으로는 <버려진 자들의 땅, The Bad Batch, 2016>에 나타난 언캐니 인간학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2. 본론

2.1 언캐니 인간학: 타인의 고통

<버려진 자들의 땅, 2016 >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곳은 미국의 텍사스 에서 알렌 이라는 여성 이 그 장소에서 추방된다. 영화는 이곳이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알렌의 상태는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언급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와 예외상태(The state of exceptions)에 모두 해당된다. 호모 사케르는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살해가 가능하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vita uccidibile e insacrificabile)이다. 이런 이유로 타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방비한 상태의 존재를 의미한다[1].

아감벤은 오늘날의 '벌거벗은 생명'의 존재는 난민, 망명 신청자, 뇌사자 같은 형태로 있다. 이들에게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모두 인간적 삶을 필요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맡겨진 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거나, 과학적 해석과 규정의 권위에 의해 '살아 있는 물질(biomass)' 상태로 축소된다. 예외상태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폭력비판>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2]. 이는 법질서의 한계와 효력이 정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버려진 자들의 땅, 2016 >에서 알렌은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이 식인종에게 납치되어 팔, 다리가 절단되고 고기로 사용되고, 쇠사슬에 묶이게 된다.



Fig. 2. Arlen's amputated body

이후 그녀는 식인종 마을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한 후 '유토피아/안식처 마을'로 가게 된다.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은 무정부 상태에서 근육질의 식인종, 혈벗은 야만인, 청소부, 미친 자들로 가득 찬 종말 이후 지옥을

배경으로한 세상이다.

영화 속 알렌과 유사하게 타인의 절단된 신체를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진은 작자미상의 참혹하게 죽어가는 남성을 찍은 중국사진에 해당된다. 아래의 왼쪽 사진은 신체가 절단돼서 고통스러워 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사진은 1904년 프랑스에서 ‘백 조각(cent morceaux)’으로 찢겨 죽는 형벌로 알려져 있다. 이런 행위는 중국의 관행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살아 있는 몸을 날카로운 칼로 팔, 다리, 성기로 향하다가 다시 가슴을 천천히 절단한다. 사진에서 온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머리와 상반신이다. 그의 몸은 서서히 남근(phallus)으로 변해 버린다. 이런 현상을 로잘린드 클라우드는 1904년 프랑스에서 인간의 신체가 마치 대도시에 있는 빌딩이 분해되는 것”[3]으로 인식했다. 1)



Fig. 3. Anonymous, Death by a Thousand Cuts, 1904. Bernardo Bertolucci, The Dreamers, 2003

로잘린드 클라우드는 천천히 죽어가는 남자의 얼굴을 ‘남근’ 현상으로 파악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외부인의 가해로 신체가 분해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푸추리(Fou-Tchou-Li)’의 죽음과 육체적인 고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굴욕(정신적 고통)에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 푸추리는 현실에서 아오한 우안(Ao-Han-Ouan)을 암살했는데, 푸추리의 자아는 초자

아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살해했고 그 대가로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다. 이런 행위로 초자아는 ‘자아/푸추리’를 더는 도외할 수 없다. 이 사진에서 중요한 부분은 얼굴과 상반신으로 시선이 집중하는데, 얼굴의 고통스럽고, 황홀한 표정을 관조하는 행위는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언급처럼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는 일이자 금기시된 성애적 지식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3] 바타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남성의 고통을 인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의 내면에서 성적요소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고통스러운 타자의 모습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적인 감정과 동반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각의 자유로운 해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4] 레비나스에 의하면 주체성에서 고통은 핵심적인 개념이다. 주체는 타인에게 열려있으며, 타인을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 그에게는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 그 책임이란 고통받는 타인의 호소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그의 짐을 대신 들어 주는 것과 같다. 즉 타인의 고통에 자신을 노출 시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고통의 개념은 그 자체로 부조리하고,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형이상학적 목적론, 존재하는 고통과 악은 정당화할 수 없다”[4]고 말한다. 다만, 고통은 무의미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고통은 의미가 있다. 타인을 위한 ‘불모’가 될 때 이 세상은 연민, 동정, 자비가 발생한다. 여기서 ‘불모’란 대신함이다. 그것은 “속죄의 방식으로 타인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런 속죄만이 모든 동정을 가능하게 한다.” [5] 영화 <버려진 자들의 땅, 2016>을 알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신체를 강탈한 식인종 마을 사람들과서 이런 속죄의 마음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알렌에게 죽임을 당한 마리아만 식인종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2.2 언캐니 인간학: 전체주의 사회

알렌은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에서 한쪽 팔 다리가 절단되는 거세를 당한 후 식인종들의 손아귀에서 탈출하여 처음에는 스스로 길을 가다가 이빨이 없는 ‘방랑자/신’의 도움을 받아 ‘유토피아/안식처 마을’ 마을로 향한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불구자, 정신병자, 가난한 자, 약자, 범죄자들로 가득차 있지만 영화의 여주인공은 이곳에서 잘 적응해 나간다.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1달러에 국수를 사고, 알렌이 거주하는 새 집은 녹슨 컨테이너의 높은 벽으로 보호되는 판자촌이다. 이곳은 개인에게 모두 집이 주어지며, 스케이트 공원에서 여가를

1) 아래 사진의 오른쪽 사진은 몽상가들 (The Dreamer)에서 여주인공 이사벨(에마그린)의 모습이다. 그녀는 문 앞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있지만, 그녀의 팔은 어둠 속에 묻혀있다. 이 상태는 스테레오 타입의 비너스상의 형식을 떠올리게 하며, 시각적 효과는 마치 팔이 절단된 것처럼 보인다. 베루톨루치 감독의 의도는 이사벨의 비너스 포즈를 통해 서양미술사에서 전해내려 오는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사벨의 전형적인 비너스 포즈는 푸추리의 극단적인 고통스런 사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바타이유는 푸추리의 사진을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금지된 성애적 지식을 해방한다고 했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사벨의 사진은 여체의 관능미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성애적 이미지를 확인하게 된다.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알렌이 거주하는 곳은 ‘폐소공포증(Claustrophobia)’[6]이 느껴진다. 이것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공포를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방은 평화로운 공간인데, 의자 아래에 있는 토끼는 알 수 없는 ‘불안(Anxiety)’ 때문에 떨고 있다.



Fig. 4. Claustrophobia and the death of a rabbit

토끼는 알렌이 미엘에게 사준 동물인데, 토끼는 ‘유토피아/안식처 마을’에서 주최한 환각 파티에서 어디론가 홀로 길을 가다가 드림이 거주하는 집에 도착했고, 미엘도 따라서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 미엘은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스파게티(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식품)’를 먹는데, 이후 알렌이 마이에미 맨과 조우하면서 미엘은 드림의 집에서 먹었던 스파게티를 사달라고 말을 하는데, 소녀의 아버지는 말없이 토끼를 죽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이때 미엘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토끼를 먹는다. 새롭게 가족이 된 알렌과 함께 먹는 장면은 표면적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미엘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Trauma)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알렌의 집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폐소공포증’을 유발한다. ‘유토피아/안식처 마을’에서는 아무도 알렌을 괴롭히지 않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개인의 주체성이 결여된 채 ‘드림/독재자’의 통제하에 살고 있다. 안락함은 ‘드림/독재자’로 알려진 남자에 의해 자비롭게 다스려지는데, 그는 거주자들에게 환각제를 투여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사회에서 쓸모없는 구성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않으며, 젊지도 않고, 건강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며, 건전하지 못합니다. 피짜에 기생충, 여기가 배드 배지입니다.”[7]. 테크노 음악과 무료 환각제는 이러한 사회적 거부자들의 고된 삶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드림은 지미(Jimmy)가 디제이 하며 파티를 열고 사막의 하늘을 배경으로 네온 불빛으로 조명을 비춘다.



Fig. 5. Gadafi and Dream's female bodyguard

‘유토피아/안식처 마을’의 주민들은 흰색 양복과 몽푹한 선글라스를 착용한 ‘드림/독재자’을 숭배한다. 드림은 이곳에서 왕처럼 군림하는데, 임신하고 젊은 여성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가 이 지역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우리가 그의 정보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는 카다피 대통령이 항상 여성 경호원을 선호한 것처럼 임신한 여자들은 기관총을 들고 그를 보호한다. 카다피의 여성 경호원은 ‘아마조네스’[8]로 불리워진다. 카다피가 경호 목적 외에성 노리개로 활용했다면, ‘드림/독재자’의 경우는 자신의 자녀를 낳고 경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 경호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드림/독재자’가 운영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조건 신봉하며, 인간 개인의 주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황하는 영혼들인 것이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전체주의에 따르면 인간이 전체에 의해서 지배받는 방식은 역사, 자연, 사회구조로 구분하였다. 이런 식의 구분에서 어떤 방식이든 전체성의 체계에서 인간의 현실을 반영할 때, 한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다. 그는 이런 불합리성에 대항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체주의에서 한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개인은 그저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만 의미를 형성한다. 전체주의 내부에서 한 개체의 고유성은 없다. 이런 식의 사고는 나와 다른 존재인 타자의 다름은 수용이 안되고, 타자의 다른 점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로 환원되거나, 제외된다.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그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9] 레비나스는 이와 같은 철학적 사상에 반기를 들면서 타자가 인간의 존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를 배려하지 않는 심리 상태는 ‘확증 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 [10] 으로 설명된다. 이런 현상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의 기준으로 타자를 바라

보고 판단하려는 심리 상태이다. 이런 사유 속에서는 타자를 온전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인 내가 바라보는 타자의 모습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철학을 요구한 것이다. 한 개인의 주체성이 부재한 불합리한 현상은 ‘유평피아/안식처 마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3 언캐니 인간학: 관계성의 회복

영화의 주인공 알렌은 디스토피아적인 설정에 갇혀 있었고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사막에서 ‘식인종 마을’ 마이애미 맨의 부인 마리아를 그녀의 자녀 허니 앞에서 사살한다. 마리아는 그들의 생계인 식인 풍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영화에서 암시했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알렌이 폭력을 당한 사실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 그녀는 허니 앞에서 살해당한 것이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표현을 빌리면 마리아는 ‘희생양’ [13]에 해당한다. 그녀의 딸인 미엘도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엘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 무능력(意思無能力)’ 상태 때문에 슬퍼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자신이 키우던 토끼를 마이애미 맨이 죽여서 먹을 때 미엘은 눈물을 흘린다. 미엘은 어머니의 슬픔 보다는 자신이 다친 현실 - 안식처에서의 편안한 삶을 더는 할 수 없다는 사실 - 이 슬퍼서 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알렌은 마이애미 맨이 잠재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고 미엘의 어머니가 되는 ‘복수의 천사(avenging angel)’ [11]로 설정된다. 아무도 마리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기독교로 해석하면 천사 ‘가브리엘 (Gabriel, 복수의 천사로 불린다)’에 해당한다.

복수와 천사라는 극단적인 이항대립적(Binary opposition) [12] 분류로 보면, 복수라는 사악한 이미지와 천사라는 신성한 존재로 이상화되는데, 천사처럼 순수한 존재가 타인에게 복수 한다는 설정은 언캐니한 측면이 있다. 천사는 기본적으로 순진무구한 존재다. 순결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는 순수하다고도 정의할 수 있다. 세상의 정의는 타자라 할 수 있다. 천사는 타자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 타자를 만나지 못하고 순수해서 용서와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이다. 타자가 지시하는 것은 고통 자체지만, 타자를 만나고 고통을 받으면서 비로소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 물론 분노, 잔인함, 증오도 동시에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버려진 자들의 땅, 2016’에서 알렌은 ‘디스토피아/식

인종 마을’에서 ‘유평피아/안식처 마을’을 경유 하면서 복수의 천사에서 마이애미 맨에게 차분한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알렌의 혼란스러운 결정을 이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렌은 이전에 그녀가 원했던 복수를 고려할 때 왜 마이애미 맨에게 사랑을 느꼈을까? 그녀의 존재는 끊임없이 혼란스러워 하다가, ‘유평피아/안식처 마을’에서 마약에 취하여 별이 빛나는 하늘에 감탄하고, 사막을 헤매는 시퀀스에서 마이애미 맨을 만나게 된다. 마이애미 맨은 그녀에게 미엘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평피아/안식처 마을’로 가는 도중에 식인종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만, 마이애미 맨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된다. 사막에서 마이애미 맨과 야영 중 낮선 사람이 권총으로 그를 쏘고 탈출해서 다시 ‘유평피아/안식처 마을’로 돌아간다. 알렌은 마이애미 맨이 걱정되서 다시 사막을 찾았지만 이미 어디론가 떠난 후였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알렌의 마음은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레비나스의 인간학에 따르면 “‘선’이란 타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타인의 수용은 타인을 영접하는 ‘환대’로 나타난다. 즉 응답과 환대는 자기희생으로서, 나의 마음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순수한 사랑의 정의는 나에게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5] 이 부분을 영화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적 인간학의 측면에서 마리아와 알렌은 자신이 폭행당한 당사자는 아니다. 단지 마리아는 ‘식인종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일 뿐이며 알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마이애미 맨과 알렌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성이 형성된다. 그 이유는 알렌이 마리아를 죽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이애미 맨은 자신의 아내를 죽인 원수가 알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영화는 폭행과 살인에 관해 두 사람 사이에서 직, 간접적인 인과성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닌 ‘불가능한 사랑’을 언급하다. 두 사람의 사랑이 가능한 다른 요소로는 마이애미 맨의 딸인 허니가 알렌이 자신의 엄마를 죽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누구나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보는 현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 아니다. 다른 현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꿈, 이상, 상상, 본능이 뒤섞인 것으로 다른 현실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극단의 관계는 융합되고 조화된다. 알렌은 이미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과 ‘유평피아/안식처 마을’이란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험했기에 마이애미 맨을

사랑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영화에서 알렌과 마이애미 맨이 연인관계가 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은 아래의 사진에 묘사되어 있다. 마이애미 맨은 ‘방랑자/신’에게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길을 잃었어요.” [6] 이 말을 듣고 ‘방랑자/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스노우볼(Snow ball)’을 하나 건네주고 다시 떠난다. ‘스노우볼’ 속의 풍경은 남, 녀가 즐겁게 만나는 장면이 있었다. 마이애미 맨은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언급한 ‘사후 작용(retroaction)’[14] 해당된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방랑자/신’이 ‘스노우 볼’을 주면서 마이애미 맨의 칼과 교환했는데, 그 이유는 ‘방랑자/신’가 마이애미 맨이 더는 살인을 하지 말고 알렌과 잘 지내라는 무언의 암시가 숨어있다.

알렌의 등장은 마이애미 맨이 앞으로 자신의 자녀 미엘을 찾아 주고 죽은 부인 대신 새로운 아내가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영화감독 아미르 푸어가 시도한 언캐니한 미학적 선택과 관객을 놀라게 하는 극단적인 인간관계에 따른 네러티브의 전개 방식은 “공포와 로맨스라는 두 가지 장르를 잘 혼합하여 여성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했다.”[15]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ig. 6. A scene that impli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len and Miami Man

3. 결론

이 연구는 언캐니 인간학 연구를 영화 <버려진 자들의 땅, 2016>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1)내용적 측면: 영화의 내러티브를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과 ‘유토피아/안식처 마을’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2)방법론적 측면: 언캐니 인간학 이론에서 레비나스의 관계적 인간학에 집중해서 분석

을 시도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현대사회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은 ‘디스토피아/식인종 마을’과 ‘유토피아/안식처 마을’ 모두 주류 사회(미국)에서 배척당한 사람 - 거주지의 불안- 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며, 두 지역 사람들 모두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 목적 없는 유희의 불안 -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두 지역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영화의 주인공 알렌이 두 지역을 경유 하면서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영화감독 아미르 푸어의 창의성은 주인공 알렌이 디스토피아적인 설정에서 지속적이고 소름 끼치는 폭력 - 주인공이 알렌이 경험한 가장 지독한 공포는 신체가 강탈당하는 공포를 한번도 겪은 적이 없다 - 을 벗어 난후 인간과의 악의적인 관계성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공포감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의수 경첩의 빠걱거리는 소리를 통해 언캐니한 공포의 느낌을 증폭시키고, 죽어가는 사체 주변에 까마귀들의 날갯짓, 몸이 흠을 질질 끌면서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그러하다. 아울러 영화에서 사람들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런 효과는 황무지의 삶은 너무 야만적이고 추악하여 그곳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아나 릴리 아미르 푸어의 영화는 동시대의 다른 영화를 비교할 때 일상적이지 않은 주제를 선택했고, 네러티브에서 인과성을 단절시키면서 주제와 내용을 표현했지만, 레비나스의 언캐니 인간학을 오롯이 표현된 영화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밝히면 <버려진 자들의 땅, 2016>의 경우 영화의 자료가 부족하고, 영화를 분석한 논문이 부재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의 과제는 언캐니 인간학에서 나와 주체의 철학(주체의 인간학)을 바탕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U. S. Kim.(2013). Die Studie über das Projekt ‘Homo Sacer’ von Giorgio Agamben (I), *Kafka research*,10(30),283-301.
- [2] Walter Benjamin.(2009). *For the concept of history, for violent criticism, surrealism, etc.* Seoul : Gil.
- [3] Rosalind. Kraus.(1985). *Corpus Delicti, October*, 33,31-71.

- [4] S. W. Kim.(2019). *A Study of Pain and Violence and in Fair Image - Focusing on film of <Master of the Forces>, <Act of Killing>, <The Look of Silence>* -.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5] Y. A. Kang.(2005).*The Face of Others: The Philosophy of Levinas*. Seoul. Moonji
- [6] M. A. Jung & K. U. Choi. (2019).Vital Signs Investigation in Subjects Undergo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Paper of the Korean Content Association, 19(6)*.412 - 417.
- [7] A. L. Amirpour.(2016). *The Bad Batch*, 2016.
- [8] N. I. Jung.(2021).*The reality of Gadafi's women 'ssecurityunit"Amazones"*.<https://www.sns-justice.org>
- [9] C. K. Park.(2020). *Philosophical anthropology based on thoughts and characters*. Seoul: Sechangpub.
- [10] C. S. An.(2021).*For a fair and just trial: Confirmation bias*.<https://brunch.co.kr>
- [11] U. J. Kang(2020). *A man who found the home address of a child sex offender on a personal information site and retaliated with a hammer*. <https://www.insight.co.kr>
- [12] J. K. Sin.(2017). *Laozi's lecture on life*. Seoul : Humanist.
- [13] R. Girard.(2007). *A scapegoat*. Seoul: Minumsa.
- [14] S. Freud(1996). *Art, literature, mental analysis*, Seoul: openbooks
- [15] A. Wilkinson, *The Bad Batch isn't a great dystopian film, but it's definitely an interesting one Like Mad Max, but not quite as thoughtful*. <https://www.vox.com>

김 석 원(Seok-Weon Kim)

[경력]



- 1994년 2월 :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미술학 학사)
- 200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 (미술학 석사)
- 2006년 2월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 박사 수료)
- 2011년 2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미디어 아트 박사)
- 2019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문화학과 (영상문화학 박사)
-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 고려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정신분석, 문화인류학, 사진, 영화
- E-Mail : ksw5053@naver.com

김 성 호(Seong-Ho Kim)

[경력]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미술학 학사)
- 2000년 1월 : 영국)켄트대학교 예술대학원 MA Fine Art (미술학 석사)
- 2008년 8월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문화예술학박사)
- 2004년 3월 ~ 2011년 2월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2011년 3월 ~ 2021년 2월 : 중원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
- 2021년 2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근무
- 관심분야 : 영상미디어, 문화콘텐츠, 학제간연구
- E-Mail : seong007sk@hanmail.net